No.20160203-001
제목: 언덕 중간에 있는 집
저자: 카쿠타 미츠요
페이지수: 424
장르: 소설
출간일: 2016 년 01 월 07 일

<내용소개>

딸을 죽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심리 서스펜스 소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나친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그 동안 묵인되고 은폐되어 왔던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어린이 집 교사의 학대 사건도 많지만, 사실 가해자의 80%는 친부모라고 한다. 최근에는 학대에 시달리다가 맨발로 탈출하여 구조된 11 살 소녀, 아버지가 친아들을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보관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러한 학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자식에게 되풀이 한다거나, 아이를 자기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산후우울증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 아이를 때리고 죽게 만들기도 한다. 살펴보면 모든 원인들이 결국 부모로서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추지 못했거나 악화된 부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악영향을 미쳐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학대로 번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평범한 주부 리사코에게 벌어진 일을 1 인칭 시점으로 그려낸다. 리사코는 어느 날 보충재판원으로 선발된다. 담당 사건의 피고인인 미즈호는 자신의 딸을 물을 채운 욕조에 빠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사코는 처음에는 재판원으로서 그녀를 바라본다. 그런데 증언과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미즈호는 뉴스에서 알려진 것처럼 악한 인간이 아니었다. 남편, 친정 부모, 시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까지 미즈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결국 딸을 죽이고 만 것이다. 사실, 리사코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한 채 딸 아야카를 낳아 기르면서 다소 지쳐있는 상태로, 점점 남편과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 아이와 겪는 미묘한 갈등과 불화를 떠올리며 미즈호에게 자신을 대입한다. 동시에 리사코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돌아본다. 미즈호가 겪어온 가시 돋친 말들을 무심코 입 밖에 내거나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깎아 내리고 상처 주는 일은 자신의 집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리사코는 기댈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미즈호를 또 다른 자신으로 여기며 동정심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선악으로 확실하게 나눌 수 없고, 악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소설은 아동학대를 상황의 탓으로 돌려 가해자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족이나 겪을 법한 관계의 문제가 큰 사건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리사코의 눈을 통해, 보다 큰 관점에서 아동 학대와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카쿠다 미츠요

1967 년 가나자와현 출생. 1990 년「행복한 유희」로 데뷔하였다. 1996 년『조는 밤의 UFO』로 노마문예신인상, 2003 년『공중정원』으로 부인공론문예상, 2005 년『대안의 그녀』로 나오키상, 2006 년「록 음악 어머니」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상, 2007 년『8 일째 매미』로 중앙공론문예상, 2011 년『트리 하우스』로 이토세이문학상, 2012 년『종이달』로 시바타렌자부로상, 『저편의 아이』로 이즈미교카문학상, 2014 년『내 안의 그녀』로 카와이하야오이야기상을 수상하였다.

No.20160203-002
제목: Step
저자: 시게마츠 키요시
페이지수: 366
장르: 소설
출간일: 2012년 03월 23일

<내용소개>

싱글대디와 어린 딸의 따뜻한 성장 이야기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생계와 가사, 육아를 혼자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부부가 같이 하더라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다. 싱글맘과 싱글대디는 아무래도 시간, 체력,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빨리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게다가 아직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만약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더 복잡한 문제들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잘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들 역시 부모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결혼 3년차, 30세의 젊은 나이에 싱글대디가 된 켄이치의 이야기다. 아내는 태어난 지 고작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 딸 미키를 남겨두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켄이치는 홀로 딸을 키우기로 결심한다. 엄마들 틈에 끼어 유모차를 밀며 보육원에 데려 가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일들이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차 익숙해진다. 밝고 상냥한 성격에 조숙한 마음을 지닌 딸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이는 보통의 부모 자식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일 뿐이다. 켄이치는 서툴지만 장인, 장모와 보육원 선생 등 주위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이 소설은 단순한 아이 성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미키가 한 살일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기의 시간을 다루며, 중요한 장면들을 뽑아 켄이치의 생각과 딸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변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얻은 깨달음 등을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다 읽은 후에는 '부모도 아이를 키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소설은 싱글 대디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더 폭넓게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이 있다. 하나뿐인 딸이 죽은 후에야 옆에 많이 있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장인의 모습은 이전부터 보아 온 흔한 아버지상이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특히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인 '스텝'은 한 발짝씩 발전해 나가는 켄이치 부녀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어로 재혼 가정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다. 작가는 가족의 빈자리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슬픔이나 외로움은 없애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끌어 안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목차소개>

1. 개굴개굴 선생
2. 라이카로 헬로·굿바이
3. 수국
4. 오이 말에 타고
5. 산타 할아버지
6. 춘분이 지나기 까지
7. 바톤
8. 한 발 뛰기, 스텝
9. 점프

<저자소개>

시게마츠 키요시

1963년 오카야마현 출생, 와세다대학 교육학부를 졸업하였다. 1991년『비포런』으로 데뷔한 후 1999년『나이프』로 츠보타요우지 문학상,『에이지』로 야마모토슈고로상, 2001년『비타민 F』로 나오키상, 2010년『십자가』로 요시가와에이지문학상, 2014년『절멸 소년』으로 마이니치출판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유성 왜건』,『질주』,『그 날이 오기 전에』,『카시오페아 언덕에서』,『솔개』,『스텝』,『아스나로 삼삼칠 박자』,『포니테일』,『또 다음 봄에』,『외동아이 동맹』,『울보 공주』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No.20160203-003
제목:「끌려가지 않는」사람의 습관
저자: 니시다 마사키
페이지수: 190
장르: 건강, 생활
출간일: 2016년 01월 28일

<내용소개>

괴로운 일에 끌려가지 않고 긍정적인 기분으로 살아가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과 마주한다. 사소한 실수로 윗사람에게 혼나거나 연인과의 이별, 이혼, 친구와의 싸움이나 배신, 타인의 무시, 돈 문제 등은 되도록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괴로운 일들이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어느 정도 예감하고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대처 방법은 다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금세 훌훌 털고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며칠 혹은 더 긴 시간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미 끝나버린 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다른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낮아진다. 그러므로 싫고 불쾌한 기분을 곱씹어보는 대신 미래를 향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가다듬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괴로운 일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스텝은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끌려가는 사람은 남의 일로 바쁘고, 취미가 없고, 흑백논리로 판단하거나 변명부터 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일 때문에 바쁘고, 회색의 범주도 납득하고, 변명하기 전에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에는 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는지 분석한다. 인간은 본래 싫거나 불편한 경험을 좀처럼 잊지 못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공포와 불안을 기억해 두는 것은 생존 본능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기분 상태와 그 이유를 분리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나 인터넷이나 주위 사람들의 편중된 정보에 휘둘리기 쉬운 상태다. 끌려가기 쉬운 유형의 인간이라면 대체 어떤 곳을 고쳐야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이 책의 3장부터 5장에 걸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습관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스트레스를 오래 끌고 가지 않는 비법을 소개한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긍정적인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아들러 심리학과도 연관 된다. 이외에 자신이 생각하는 답 외에 여러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 때로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완벽히 해소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기한을 설정해 관리하는 편이 좋다. 원인이 되는 일이 언제 끝날지 알게 되면 그 때까지 견딜 힘이 생긴다.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과 의사로서 목격한 환자들의 극복 사례를 이 책에 담았다. 괴로운 일에 끌려가는 시간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으로 바꿔나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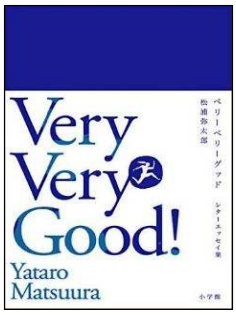
<목차소개>

제 1장: 끌려가는 사람·끌려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
제 2장: 왜 끌려가버리고 마는 걸까
제 3장: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습관
제 4장: 끌려가지 않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제 5장: 「끌려감」을 오래 끌지 않는 비법

<저자소개>

니시다 마사키
정신과 의사 겸 의학 박사. 스탠포드대학 의학부 수면·생체 리듬 연구소 객원 강사.
1970년 이시가와현 출생. 도쿄의료치과대학 졸업.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병원, 하버드대학 의학부 연구원, 자치의료대학강사 등을 거쳤다. 일본정신신경학회 전문의, 수면의료인정의 자격 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임상 현장에서 진찰한 것뿐 아니라 정신과 산업의로서 기업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종사해 왔다. 현재는 스탠포드대학에서 수면의학 연구를 하고 있다.

No.20160203-004
제목: Very Very Good
저자: 마츠우라 야타로
페이지수: 200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5년 12월 01일



<내용소개>

인생 선배가 편지 형식으로 전하는 작지만 귀중한 조언들을 모은 에세이 책

요즘에는 손 편지를 주고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다. 편지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메일이나 인쇄물로 보내거나, 미리 준비된 문구를 붙여 넣어 일괄적으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받으면 더욱 기쁘다. 오직 받는 사람만을 위해 쓴 글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형식도 필요 없다. 상대방을 떠올리며 정직하게 진심을 담은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자는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편지 형식을 택했다. 이 책은 사실 20대 후반~30대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Oggi』라는 잡지에 2013년~2015년에 걸쳐 연재한 에세이를 모아 펴낸 것이다. 하지만 일, 인간 관계, 생활 등 인생에 대해 고민하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싶은 젊은이라면 남녀 상관없이 읽어볼 만하다.

어렵고 힘든 일을 대처할 때는 몰랐던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곧 즐거움과 연결된다, 자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등 인생의 가르침이 편지에 들어있다. 괴롭고 힘들 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한다. 일요일 밤에 다림질을 하는 저자의 습관 같은 소소한 이야기도 나온다. 당장 다가오는 월요일이 너무 싫을 때에는 미리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자기만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도 좋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의 경험과 주관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고 있다. 이미 그 시기를 겪은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읽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와 닿을 것이다. 때로는 부모님의 가르침처럼, 형제 자매의 잔소리처럼, 친구나 지인의 위로가 되어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려 하는 것이 이 다정한 에세이집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 먼저 인생을 겪은 선배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읽어 보면 자신만을 위해 쓰인 편지처럼 느껴진다. 세상에 대처하는 새로운 관점을 접하고 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저자의 진심 또한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루 하루 진지하게 삶에 임하는 자세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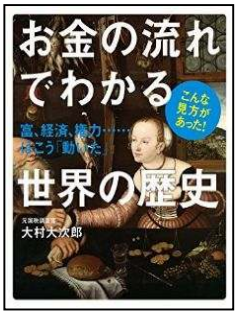
<목차소개>

1. 블루 컬러 편지지에 연필로
2. 그림엽서와 커피숍
3. 삼십 통의 편지 묶음
4. 부적 한 줄 처방
5. 종이 컵의 Thanks!
6. 단 한 장의 편지에

<저자소개>

마츠우라 야타로

『생활의 기본』 편집장이자 문예가. 나카메구로의 셀렉트 북 스토어인 「COW BOOKS」의 대표를 맡고 있다. 생활과 업무의 즐거움과 풍부함, 배움에 대해 집필 및 잡지 연재, 라디오 출연, 강연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No.20160203-005
제목: 돈의 흐름을 통해 배우는 세계사
저자: 오오무라 오오지로
페이지수: 255
장르: 비즈니스 / 경제
출간일: 2015년 12월 11일

<내용소개>

'돈의 흐름'을 통해 세계사를 풀어낸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대체로 굵직한 사건과 인물 위주 설명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켰는지, 어느 쪽이 승리해서 권력을 얻었는지, 승자와 패자는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법에 익숙해져 있다. 최근에는 경제 및 사회 제도가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에 부응하여, 예전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적 권력의 역사가 주류에 해당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세계사를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실제로 역사를 움직인 것은 경제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항상 보다 많은 부와 재물을 손에 넣으려 노력해왔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돈의 형태나 축적 방법은 바뀌었을 뿐이다. 저자는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돈의 흐름을 통해 세계사를 추적한다. 시작은 고대 국가 성쇠의 주요 요인이었던 징세 시스템 분석이다. 고대 유대인과 중국의 금융 제도, 몽골과 이슬람의 세금 정책을 거쳐 중세 유럽의 대항해 시대, 근대 영국의 산업혁명과 자본 정책까지 이어진다. 나폴레옹의 패배는 단기 병력 모집엔 유리하지만 장기전은 버티기 힘든 징병제에 있었다고 분석한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향한 갈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 조차 유지하기 힘들었던 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흥미로운 분석과 더불어 세계를 은밀하게 움직인다는 로스차일드 가문 이야기로 독자의 흥미를 더욱 높인다. 20세기 가장 큰 사건인 제1·2차 세계 대전도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 세계 1차 대전의 발발 원인으로 히틀러의 지나친 정치적 야망을 꼽는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독일이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전쟁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제1·2차 세계 대전은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활상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세계 자원과 재물 배분 형태가 뒤바뀌며 자연히 국가 간 세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뒤이어 소련의 등장과 리먼 쇼크로 인한 붕괴, 머니 게임처럼 변한 현재의 세계 구조를 짚어보며 마무리 하고 있다.

부유한 나라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저자는 '돈의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보인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더 간단하게 머리 속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돈의 흐름」으로 해독하면,「세계사를 보는 방식」이 싹 바뀐다!
제 1장: 고대 이집트·고대 로마는 "탈세"로 망했다
제 2장: 유대인과 중국 - 태고부터 "금융"에 강한 사람들
제 3장: 몽골과 이슬람이「돈의 흐름」을 바꿨다!
제 4장: 그리고 세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것이 되었다
제 5장: 해적과 노예 무역으로 "재물"을 축적한 엘리자베스 여왕
제 6장: 무적의 나폴레옹은 "금융 전쟁"에서 패했다
제 7장:「영국신사」의「악덕 상매매」
제 8장: 세계 경제를 움직인「로스차일드 가」란?
제 9장: 메이지 일본의 "기적의 경제 성장"을 따르다!
제 10장:「세계 경제 세력도」를 바꾼 제1차 세계대전
제 11장: 제2차 세계대전의 "수지 결산"
제 12장: 소련 붕괴, 리먼 쇼크 – 혼미한 세계 경제

<저자소개>

오오무라 오오지로

전 국세조사관. 국세국에서 10년간, 주로 법인세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하였다. 퇴직 후에는 비즈니스 중심의 자유 기고가로 일하고 있다. 단행본 집필, 잡지 투고, 라디오 출연,『마루사!!』(후지 TV)와『나사케의 여자』(TV 아사히) 감수 등을 맡으며 활약하고 있다. 베스트셀러인『모든 영수증은 경비에서 지워라』를 비롯하여 세금·회계 관련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한편, 학생 시절부터 돈과 경제 역사를 연구하여 별도의 필명으로 지금까지 30권이 넘는 저작물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오오무라 오오지로」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첫 역사 관련서이다. .

No.20160203-006
제목: 4 가지 타입으로 나도 영문법 마스터!
저자: 시미즈 켄지
페이지수: 240
장르: 어학
출간일: 2015년 07월 14일

<내용소개>

영문법을 보다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도 한다. 특목고나 명문대 진학 시 좋은 영어 성적이 필요하며, 상당수의 대학교는 일정 점수 이상의 토익 성적을 졸업 자격으로 요구한다. 취직 시에도 대다수의 회사는 토익이나 영어 회화 성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영어를 사용하는 일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잘 해야만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영어 능력을 점수로 평가 하다 보니, 시험 성적은 높아도 실제 생활에서는 입도 벙긋 못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이해'가 아니라 암기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과서 및 교재에서는 영어는 문장 형태를 5개 형식으로 나누는 것부터 설명한다. 부정형, 동명사, 분사, 완료형, 가정법, 수동태, 관계대명사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덧붙이듯이 전치사, 형용사, 부사 등을 배우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무슨 뜻인지 이름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문법 용어들을 보며, 이해하지 못해도 우선 외운다. 당장의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지만 영어 능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영어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문법 항목을 명사 타입 / 동사 타입 / 형용사 타입 / 부사 타입으로 4가지 품사에 맞춰 다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별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던 명사와 관사, 대명사, 관계 대명사, 명사처럼 쓸 수 있는 'to+동사원형'까지 모두 명사 타입에 넣어버리는 것이다. 문장 내에서 같은 성격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공통 성질을 배우기 위해서다. 항목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문장 내에서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복잡해 보이는 긴 문장도 결국 네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구조 분석 방식을 몸에 익히게 되면 금방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책 본문은 상세한 설명과 함께 풍부한 예시문이 제시 되고, 중간 중간 간단한 문제를 풀며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대형 영어학원을 거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쳐 왔다. 이 책에는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담겨 있다.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모두 문법적 기초 없이 실력을 쌓으려 해 봤자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영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영어 공부를 꽤 했지만

문장 구조 파악과 독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고 싶지만 입을 열면 단어 단순 나열에 그치고 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명사 타입
(명사와 관사 / 「그것」을 나타내는 대명사 it / 전체 중 선택한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등)
제 2장: 동사 타입
(현재형 / 과거형 / be동사+ing형 등)
제 3장: 형용사 타입
(형용사 / 형용사처럼 쓰는「전치사+명사」/ 형용사처럼 쓰는「to+동사 원형」등)
제 4장: 부사 타입
(부사 / 부사로 쓰이는「to+동사 원형」/ 부사 구문은 부사 타입 등)
* 영어의 기초지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5문형」이란 무엇?
(제1문형/ 제2문형/ 제3문형 등)

<저자소개>

시미즈 켄지
도쿄 아사쿠사 출신. 죠치대학 문학부 영문학과 졸업 후, 대형 학원 강사, 가이드 통역사, 우라와 고등학교 등을 거쳐 현재는 사이타마현립 가와구치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기초부터 상급까지 알기 쉽고 독특한 수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저서로는 시리즈 25 만부 돌파『패턴으로 이야기한다·영어회화「1 초」레슨』,『중학 영어로 말하는 1 초 영어회화』,『신 편집: 어원과 일러스트로 한번에 기억하는 영단어』등 50 권을 넘는다. 또한 3 개 국어로 번역 출판된『비슷한 영단어 사용 분류 BOOK』은 한국에서 장기간 판매되고 있다.

No.20160203-007
제목: 프래그머티즘(실용주의 철학) 인간
저자: 이토 쿠니타케
페이지수: 286
장르: 인문, 철학
출간일: 2016년 01월 06일

<내용소개>

철학가와 사상을 좇아 '프래그머티즘(실용주의 철학)'으로 인도하는 입문서

진리란 무엇인가? 이는 고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온 질문이다.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학문이 생겨났고 발전해왔다. 철학도 그 중 하나다.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세계의 진리를 깊이 파고드는 학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 흐름과 용어에 문외한인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제목에 등장하는 '프래그머티즘'은 실용주의 철학을 뜻하는 말이다. 어떠한 관념이나 사상을 행위(그리스어로 pragma)와의 관련성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모든 개념이나 신념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그 유용성에 따라 의미와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사상이다. 1870년대 퍼스가 처음 주장하였으며 19세기 말 제임스를 통해 널리 퍼졌고, 20세기 초 미드와 듀이가 구체화하였다. 같은 실용주의 안에서도 철학자에 따라 초점이나 어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출발점부터 가류주의, 다원주의, 표현주의, 홀리즘 등 다양한 매력과 생각의 깊이를 지닌 명제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철학 사조일 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실용주의나 실제주의라는 이름으로 생활 곳곳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세계의 다양한 철학 흐름의 중심에 자리해 있다.

이 책은 프래그머티즘을 시작점, 바로 앞 시대, 앞으로의 미래로 나눠 다룬다. 퍼스에서 시작해 제임스, 듀이를 거쳐 콰인, 퍼트넘, 로티에 이르는 순서로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각 철학자의 논점, 차이점과 계승점 등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설하였다. 그 중 '베나세르프의 딜레마 해결에 대한 퍼스 수학론의 공헌' 부분은 현대에서 프래그머티즘이 철학 외의 학문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덧붙여 맥베스와 티에르슬랭, 하크와 미삭 등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현대 철학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프래그머티즘 제창자 대다수는 여성 철학자라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프래그머티즘은 전문가들만 다루는 어려운 철학이 아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유연한 사상이다. 실용성을 으뜸으로 여기는 생활 방식, 어찌 되었든 결과가 좋으

면 좋은 것이라는 발상이나 행동도 실용주의 철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실용주의 철학에 관심 있는 초심자와 전문가 모두 흥미롭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이다.

<목차소개>

서장: 프래그머티즘이란 무엇인가
제 1장: 원류로서의 프래그머티즘
(퍼스 / 제임스 / 듀이 등)
제 2장: 바로 앞 시대의 프래그머티즘
(콰인 / 로티 / 퍼트넘 등)
제 3장: 앞으로의 프래그머티즘
(브랜덤 / 맥베스와 티에르슬랭 / 하크와 미삭)
마치며: 오늘날의 프래그머티즘 등

<저자소개>

이토 쿠니타케
1949 년 가나자와현 출생. 류코쿠대학 문학부 교수이자 교토대학 명예 교수. 분석 철학·미국 철학을 전공하였으며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No.20160203-008
제목: 필요 충분 생활
저자: 탓쿠
페이지수: 200
장르: 생활 / 건강
출간일: 2015년 05월 20일

<내용소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으로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방, 화장실, 거실, 사무실 책상 등 자신이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 놓아둔다. 그 중에는 정말 필요해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모든 물건이 필요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지만 기능이나 디자인이 조금 바뀌어 새로 출시됐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한정판이라서, 오직 기분전환을 위해 사는 것들도 많다. 종종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한다. 그렇게 크고 작은 물건들이 쌓이다 보면 둘 곳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다 언젠가는 쓰일 날이 있을 것 같고, 결국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 오히려 정리정돈을 도와준다는 물건들을 추가로 구입한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되고, 쾌적함과는 점점 멀어져 간다.

이 책은 생활 공간을 상쾌하게 만드는 방법을 업무, 일상, 정보, 취미 및 기호로 분류하여 제안한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것과 없어도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쓰지 않는 기능들이 합쳐져 부피만 큰 다기능 제품보다 실제로 사용할 단순 기능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하루에 1회 이하로 사용하는 것은 세면대에서 치울 것, 집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선 전화나 팩스는 없앨 것, 괜한 쇼핑의 원인을 제공하는 포인트 카드는 집에 두고 다닐 것 등 집과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추상적이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 취급법도 다루고 있다. 스마트폰은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홈 화면 하나로 모아두는 편을 추천하며, 메일은 그 때 그 때 분류하여 수신함을 항상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급할 때 금방 찾을 수 있어 검색 소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취미나 기호 관련 제품은 일정 비용을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제품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 어차피 관심 대상이 바뀌면 기존에 구입한 것들은 버려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한다. '필요 충분 생활'이란, 이 이상 늘어나면 쓸모 없고 이보다 적으면 곤란해지는 상태이다. 틈틈이 자신의 공간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더욱 깔끔하게 수납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없앨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덧붙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상대방의 가치관과 영역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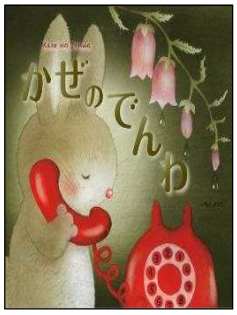
이 책에는 책상 위에 펜은 두 자루면 충분하다거나 목욕 수건은 필요 없다, 하의는 세 벌이면 된다는 내용도 나온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이 제시하는 모든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보다 자기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나도 예전에는 정리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제 1장: 업무 편
(책상 위를 옮기다 / 책상 위에 불필요한 것 / 단순 기능이 다기능을 이긴다 등)
제 2장: 일상생활 편
(세면대에 두는 물건은 1일 1회 규칙 / 욕실은 호텔을 목표로 한다 / 청소기는 필요 없음 등)
제 3장: 정보 편
(스마트폰의 홈 화면은 1개만 / 메일 수신함은 항상 비운다 / 정보는 능동적으로 모은다 등)
제 4장: 취미 기호 편
(차는 아무 것도 채우지 않고 탄다 / 음악은 디지털로 관리한다 / 렌탈 제품을 활용한다 등)
제 5장: 필요 충분 생활의 마음가짐
(내가 필요 충분 생활에 이르기까지 / 필요 충분한 상태가 되면 정리하기가 즐거워진다 / 지혜를 엮어 규칙을 만든다 등)
마치며

<저자소개>

탓쿠
리서처. 1978 년 도야마현 출생의 남성. 2015 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디 작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개인 출판 전자 서적판『필요 충분 생활』이 Kindle 스토어에서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 외에『점차 나아지는 어른의 공부법』,『프로그래밍 초 초심자가 초심자가 되기 위한 Python 입문』도 전자 서적으로 발매 중이다. 좌우명은 "인간만사 새옹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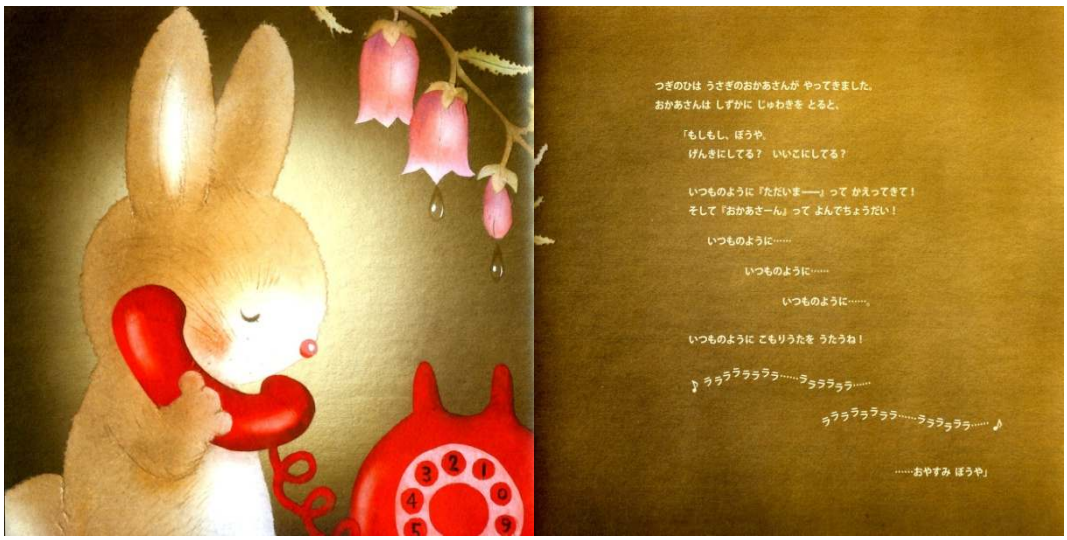
No.20160203-009
제목: 바람의 전화
저자: 이모토 요우코
페이지수: 25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02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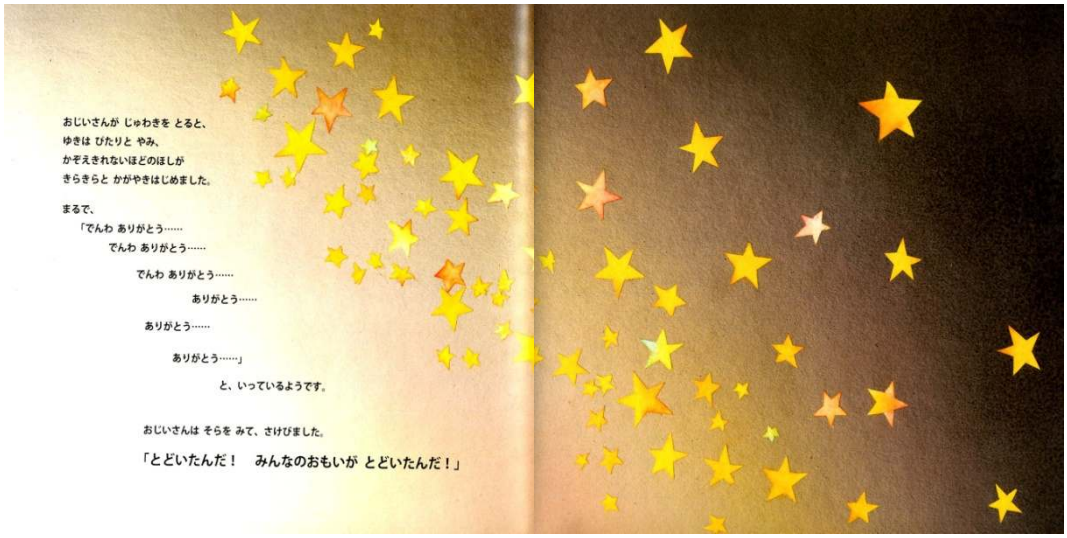
<내용소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전화 이야기

산 위에는 전화기가 한 대 놓여있습니다. 이 전화기에 대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꼭 전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찾아옵니다. 아기 너구리는 수화기를 들어 먼 곳으로 떠났다던 형을 찾습니다. 혼자서는 쓸쓸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엄마 토끼가 전화기를 찾아옵니다. 아기 토끼에게 말을 건네며, 그리움을 담아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아빠 여우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찾습니다. 막막함과 슬픔, 그리고 고마움을 털어놓습니다. 며칠 뒤, 고양이는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인지 가르쳐달라고 신에게 말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 곰 아저씨는 산 위의 전화가 울리는 벨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그 전화는 원래 곰 아저씨가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신기해하며 수화기를 들자,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전화에 대한 감사인사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이 책은 동일본 지진 피해 후, 이와테현 한 마을에 설치된 「바람의 전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짧은 동화를 읽고 나면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본문이미지>





<저자소개>

이모토 요우코

효고현 출생.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유화과를 졸업하였다.『고양이의 그림책』,『메밀꽃이 핀 날』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엘바상을 2 년 연속 수상,『이모토 요우코 노래 그림책 1』로 그래픽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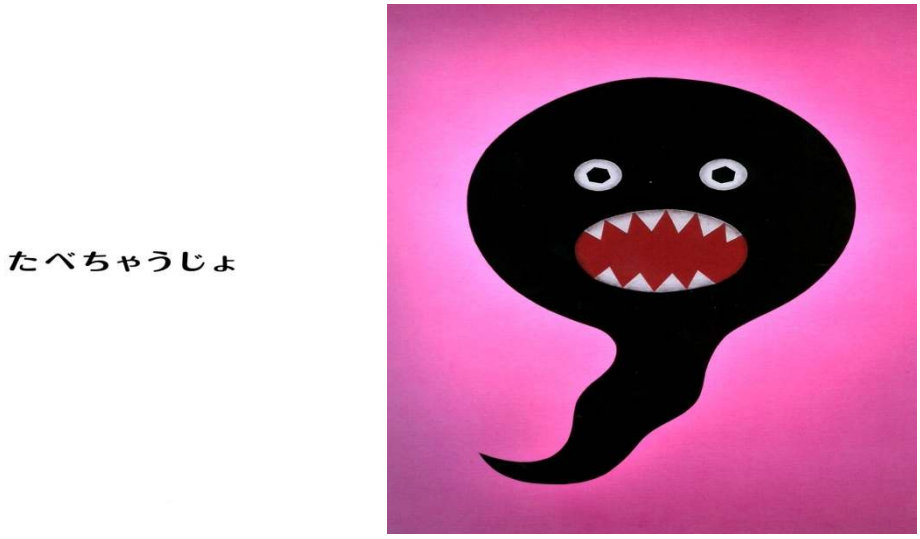
No.20160203-010
제목: 도깨비다!
저자: tupera tupera
페이지수: 2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5년 07월 14일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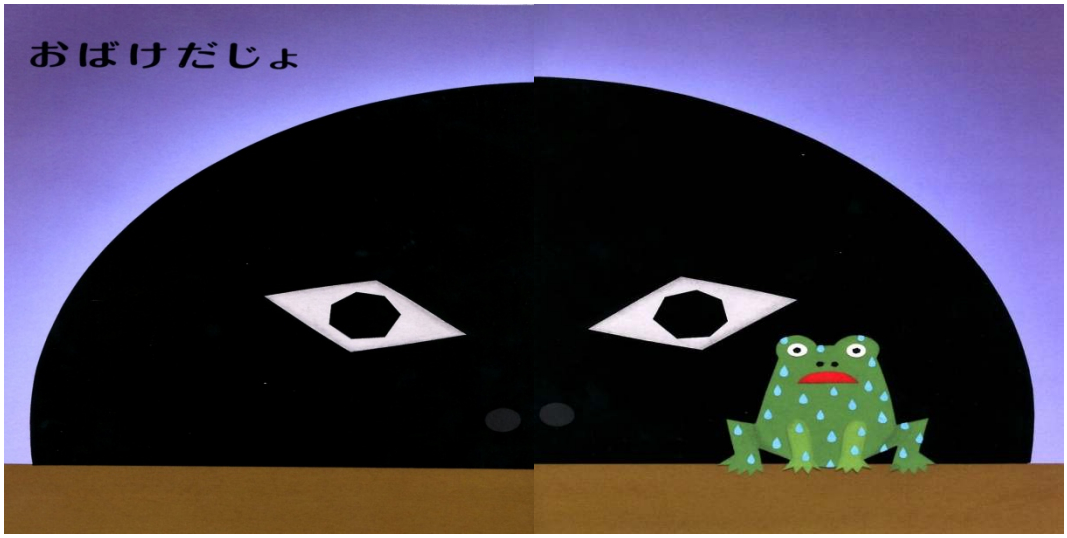
무서운 도깨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첫 장을 펼치면 동그랗고 까만, 이상한 모양의 생물체가 등장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것은 마치 도깨비처럼 보입니다. 꼬리 쪽을 흔들더니 크악, 하는 소리와 함께 뒷다리 두 개가 생깁니다. 잡아먹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이번엔 앞다리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도깨비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가 싶더니, 멀어지면서 제대로 된 모습이 보입니다. 도깨비가 아니라 개구리였습니다. 그런데 개굴개굴 우는 개구리의 뒤로 까만 얼굴과 큰 눈이 나타납니다. 잡아먹겠다고 협박하자 개구리는 열심히 뛰어 도망갑니다. 길고 긴 새로운 도깨비의 정체는 뱀이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간단한 내용과 독특하고 선명한 그림체가 특징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징그러워 마치 도깨비 같지만, 거리를 두고 떨어져 보면 그냥 개구리, 뱀일 뿐입니다. 글이 많지 않고 유쾌한 이야기이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장을 넘기며 즐겁게 웃을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つかまえちゃうじょ



<저자소개>

tupera tupera

카메야마 타츠야, 나카가와 아츠코로 구성된 유닛. 그림책과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 중이다. 주요 그림책으로는「얼굴 노트」,「야채 씨」등이 있다.